

#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정 성 미\*

## I. 머리말

지난 몇 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취업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여성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서비스업 부문의 전문직종 취업자가 증가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괜찮은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여성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에게 양질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osch & Wagner(2005)는 유럽 여성 서비스업 연구에서 여성노동의 대안을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보고 있으며, OECD의 연구에서도 여성고용률과 사회서비스업 고용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등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을 통한 여성 고용률의 양적 증가가 질적 측면의 어떠한 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사회서비스업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여성 취업자 변화가 산업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사회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했는지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과 고용률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또 사회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나누어 각 산업의 인적속성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 II.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

### 1. 사회서비스업의 정의

Singleman(1978)이 제안하고 Elfring(1988)이 체계화한 서비스업 분류방법에 따르면, 서비스업은 네 개의 분야 -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 로 나뉜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서비스의 경제적 기능, 주요 수요자의 차이, 자원배분에서 비시장메커니즘의 활용 정도 등이다(김혜원 외(2006)에서 재인용).

사회서비스업의 세부산업은 산업의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과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9차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분석을 위해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은 제외하고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만 구성된 광의의 사회서비스업을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관련 일자리 등 저임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부 포함되는 산업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을 사회서비스업으로 칭하고 각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표 1〉 사회서비스업의 분류

	8차 표준산업분류	9차 표준산업분류
전부 포함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 교육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일부 포함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Q. 오락·문화·운동서비스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S. 가사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M. 사업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주: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는 2008년 이후 9차 표준산업분류로 개정하여 2004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2.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의 여성 고용 확장

<표 2>를 보면, 1980년에서 2011년 사이 여성 취업자의 절대수는 두 배가량 증가하여 2011년 천만 명을 넘었다.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38.2%에서 2011년 41.6%로 증가하였고, 여성고용률도 증가해 남녀 고용률 격차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취업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42%를 넘지 못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률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체를 지속하며 답보상태에 있다. 또 여성 취업자의 상당부분이 파트타임이며, 파트타임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를 겪게 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감과 동시에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여 취업자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성별로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먼저 여성은 남성과 달리 한정된 세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제조업(C), 도소매업(G)은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산업에는 여성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서비스업(P)과

<표 2> 취업자 특징

(단위: 천 명, %)

	여성취업자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	여성고용률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
1980	5,222	38.2	41.3	
1985	5,833	39.0	40.9	
1990	7,376	40.8	46.2	
1995	8,267	40.5	47.2	
2000	8,769	41.4	47.0	
2005	9,526	41.7	48.4	11.7
2006	9,706	41.9	48.8	12.2
2007	9,826	41.9	48.9	12.7
2008	9,874	41.9	48.7	12.7
2009	9,772	41.6	47.7	15.2
2010	9,914	41.6	47.8	16.4
2011	10,091	41.6	48.1	16.5
2012 상반기	10,186	41.6	48.1	16.4

주: 9차 산업분류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성별·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					증감					비중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2005	2007	2009	2011	2012 상반기
남 자	전체	13,330	13,607	13,734	14,153	14,279	137	163	31	238	240	100.0	100.0	100.0	100.0	100.0
	A	963	911	910	859	829	5	-32	6	-25	-6	7.2	6.7	6.6	6.1	5.8
	B	15	16	21	17	13	1	2	0	-3	-7	0.1	0.1	0.2	0.1	0.1
	C	2,759	2,707	2,676	2,817	2,797	31	-25	-16	26	-53	20.7	19.9	19.5	19.9	19.6
	D	58	67	81	63	61	-1	7	8	-4	-4	0.4	0.5	0.6	0.4	0.4
	E	49	51	64	59	61	5	1	7	3	3	0.4	0.4	0.5	0.4	0.4
	F	1,655	1,677	1,557	1,595	1,616	-2	10	-80	8	63	12.4	12.3	11.3	11.3	11.3
	G	1,993	1,996	1,968	2,028	2,061	-15	6	4	82	57	15.0	14.7	14.3	14.3	14.4
	H	1,064	1,150	1,153	1,213	1,245	18	56	0	42	46	8.0	8.5	8.4	8.6	8.7
	I	639	633	643	632	654	3	-2	-5	-9	23	4.8	4.7	4.7	4.5	4.6
	J	431	457	473	520	529	12	7	14	31	27	3.2	3.4	3.4	3.7	3.7
	K	369	387	384	421	409	5	6	-23	5	-6	2.8	2.8	2.8	3.0	2.9
	L	340	334	324	309	317	26	-1	4	-33	4	2.6	2.5	2.4	2.2	2.2
	M	435	468	581	678	719	2	3	87	69	53	3.3	3.4	4.2	4.8	5.0
	N	442	560	537	604	596	13	82	-31	20	-2	3.3	4.1	3.9	4.3	4.2
	O	552	543	661	622	626	-2	1	83	11	19	4.1	4.0	4.8	4.4	4.4
	P	546	578	599	547	562	6	17	6	-43	13	4.1	4.2	4.4	3.9	3.9
	Q	169	198	224	248	255	-4	19	16	19	9	1.3	1.5	1.6	1.8	1.8
	R	224	221	233	240	256	13	-8	-19	13	15	1.7	1.6	1.7	1.7	1.8
	S	606	638	629	667	663	20	18	-29	26	-9	4.5	4.7	4.6	4.7	4.6
T	4	4	6	6	7	0	0	1	-1	0	0.0	0.0	0.0	0.0	0.0	
U	18	12	9	9	8	0	-3	-4	-1	-3	0.1	0.1	0.1	0.1	0.1	
여 자	전체	9,526	9,826	9,772	10,091	10,186	162	120	-102	177	209	100.0	100.0	100.0	100.0	100.0
	A	850	812	738	683	615	-16	-26	-45	0	-21	8.9	8.3	7.6	6.8	6.0
	B	1	1	2	1	2	0	-1	0	0	1	0.0	0.0	0.0	0.0	0.0
	C	1,371	1,307	1,160	1,273	1,252	-78	-17	-110	36	-31	14.4	13.3	11.9	12.6	12.3
	D	13	19	15	13	11	0	3	-2	1	-2	0.1	0.2	0.2	0.1	0.1
	E	7	11	8	12	12	2	0	-1	3	0	0.1	0.1	0.1	0.1	0.1
	F	158	172	163	156	149	-3	6	-12	-10	-7	1.7	1.8	1.7	1.5	1.5
	G	1,754	1,677	1,632	1,610	1,630	-40	-44	-35	-24	22	18.4	17.1	16.7	16.0	16.0
	H	101	97	94	119	128	12	-2	-1	10	12	1.1	1.0	1.0	1.2	1.3
	I	1,419	1,416	1,294	1,221	1,239	-2	1	-102	-27	19	14.9	14.4	13.2	12.1	12.2
	J	206	177	179	184	181	19	-24	11	6	1	2.2	1.8	1.8	1.8	1.8
	K	376	419	382	425	438	2	15	-32	34	22	3.9	4.3	3.9	4.2	4.3
	L	157	171	176	177	173	18	6	7	2	-3	1.6	1.7	1.8	1.8	1.7
	M	190	234	262	283	288	17	18	0	8	14	2.0	2.4	2.7	2.8	2.8
	N	300	394	407	482	499	43	54	1	43	21	3.1	4.0	4.2	4.8	4.9
	O	239	254	370	329	329	26	-6	108	-21	5	2.5	2.6	3.8	3.3	3.2
	P	1,058	1,162	1,233	1,139	1,177	53	21	42	-70	48	11.1	11.8	12.6	11.3	11.6
	Q	<b>471</b>	<b>542</b>	<b>774</b>	<b>1,063</b>	<b>1,127</b>	<b>54</b>	<b>40</b>	<b>140</b>	<b>140</b>	<b>83</b>	<b>4.9</b>	<b>5.5</b>	<b>7.9</b>	<b>10.5</b>	<b>11.1</b>
	R	159	149	157	177	167	24	-1	-10	25	-13	1.7	1.5	1.6	1.8	1.6
	S	565	653	583	595	608	29	54	-56	19	25	5.9	6.6	6.0	5.9	6.0
T	126	157	140	147	161	5	22	-5	4	17	1.3	1.6	1.4	1.5	1.6	
U	6	3	3	4	3	-1	-2	0	1	-2	0.1	0.0	0.0	0.0	0.0	

주: 1) 9차 산업분류 기준임.

2)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E: 하수·폐기물, 환경 등,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임대업,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서비스업, U: 국제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개인서비스업(R, S, T), 숙박 및 음식점업(I) 등에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이후 성별 산업 구성의 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은 제조업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여성 제조업 비중은 2005년 14.4%에서 2012년 상반기 12.3%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여성 취업자의 1/3 이상을 차지해 오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감소해 2012년 상반기 28.2%를 기록하였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5년 471천 명이던 취업자가 2012년 상반기 1,127천 명 규모로 크게 증가했고,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11.1%로 두 배 이상 커졌다. 심지어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업(O), 교육서비스업(P)에서 소폭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여성 취업자 대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서비스업 구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임금근로 비중이 각각 80%, 97%의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비교적 임금근로자 중심의 전문화된 경향으로 취업자 구성이 변화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Wagner(2005)는 여성의 고용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며, 특히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여성고용은 여성 총고용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주장한다. 즉 일하는 여성은 가정 내 일을 맡아 줄 서비스 부문이 필요하고, 서비스 부문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소득은 서비스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다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소비되어 이는 곧 사회서비스 부문의 증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존재하는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평균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다(김혜원 외, 2006).

전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2004년 전체 취업자의 12.9% 수준에서 2012년 상반기 1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특히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4년 56.3%에서 2012년 상반기 64.6%로 증가해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는데, 2004년 17.5%에서 2012년 상반기 25.8%로 증가해 전체 여성취업자의 1/4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표 4〉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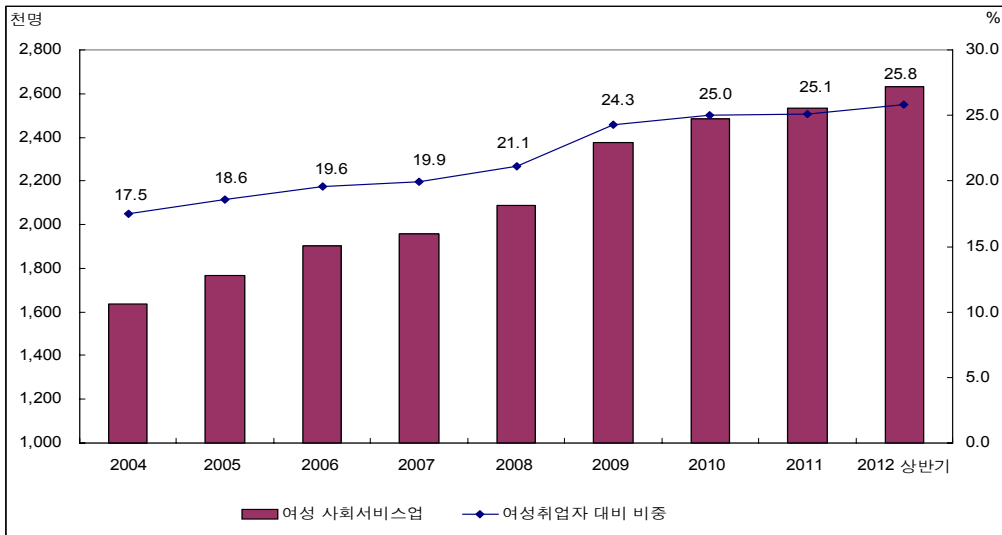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상반기
전체 사회서비스업	2,903	3,034	3,184	3,277	3,466	3,861	3,912	3,948	4,074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업 비중	12.9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7
여성 사회서비스업	1,635	1,768	1,903	1,958	2,087	2,377	2,482	2,531	2,632
사회서비스업의 여성 비중	56.3	58.3	59.8	59.7	60.2	61.6	63.4	64.1	64.6
여성 취업자 대비 여성 사회서비스업 비중	17.5	18.6	19.6	19.9	21.1	24.3	25.0	25.1	25.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여성 사회서비스업 및 고용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사회서비스업 국제비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ILO에 보고된 가장 최근 자료가 2008년까지 수록한 한계로 2008년 수준에서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14.7%)는 터키(13.1%) 다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남녀 모두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비교국가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10~19% 수준으로 국가 간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여성은 국가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은 여성 고용의 절반 이상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덴마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는 여성 고용의 40% 이상이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터키 다음으로 낮아서 20%(2008년 기준)를 갖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표 5〉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2008년)

(단위 : %)

	전 체	남성	여성
한국	14.7	10.1	21.1
터키	13.1	11.9	16.6
스페인	16.9	11.6	23.9
이탈리아	17.4	12.0	25.0
포르투갈	18.4	12.0	25.7
그리스	20.1	15.4	27.0
폴란드	18.4	10.2	28.3
오스트리아	20.8	13.5	29.4
일본	20.0	13.2	30.1
헝가리	21.6	12.9	32.1
독일	23.0	14.8	32.9
호주	23.8	13.8	35.8
뉴질랜드	23.6	12.7	35.9
아일랜드	21.7	10.7	36.9
프랑스	27.4	17.2	38.6
미국	26.3	14.8	39.3
핀란드	26.2	12.2	41.4
네덜란드	28.9	17.0	43.1
벨기에	29.7	18.6	43.4
영국	28.7	16.0	43.5
덴마크	30.7	16.4	47.0
스웨덴	31.9	14.9	50.9
노르웨이	35.0	18.6	53.4

주: 1)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으로 한정함.

2) 그리스, 폴란드는 ISIC-Rev.4, 그 외 국가는 ISIC-Rev.3 기준임. 한국은 9차 표준분류를 따름.

3) 덴마크(2002), 영국(2006), 아일랜드(2007)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8년 기준임.

자료: ILO, <http://laborsta.il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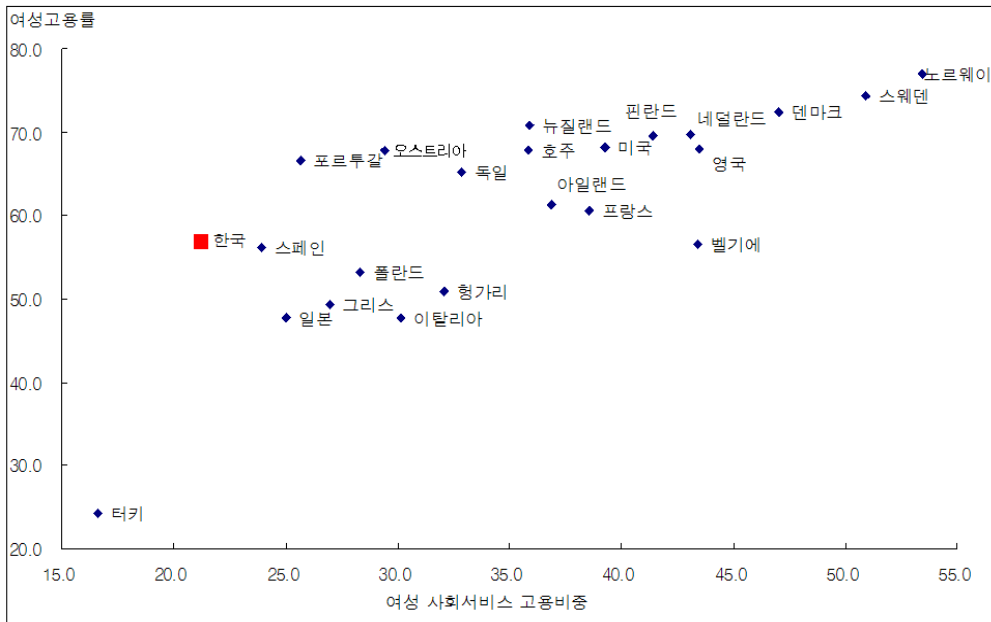
- 1) 세부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서비스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취업자 대비 비중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교육서비스업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벨기에, 뉴질랜드, 헝가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선진국의 예에서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와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 증대가 곧 여성 고용의 증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와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지국가의 발달정도와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 참여는 여성 고용률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여성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특징과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2] 주요 국가들의 여성고용률과 여성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단위 : %)



- 주 : 1) 사회서비스업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포함함.
- 2) 그리스, 폴란드는 ISIC-Rev.4, 그 외 국가는 ISIC-Rev.3 기준임. 한국은 9차 표준분류를 따름.
- 3) 덴마크(2002), 영국(2006), 아일랜드(2007)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08년 기준임.
- 4) 여성고용률은 OECD,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은 ILO의 자료를 이용함.

자료 : ILO, <http://laborsta.ilo.org/>  
 OECD, <http://stats.oecd.org/>



### Ⅲ.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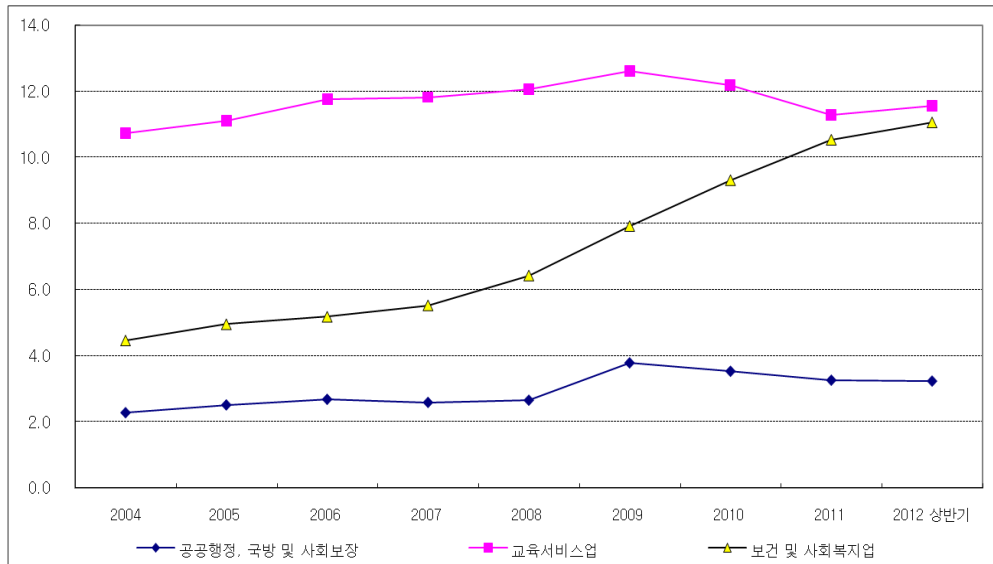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최근 여성 취업자의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급격한 증가인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10~12% 수준을 유지한 교육서비스업의 비중만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빠르게 양적 증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업의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6 참조). 10% 미만 증가율을 보이는 보건업과 달리 사회복지업은 2009년 59%, 2010년 46%, 2011년 24.9%의 급격한 증가를 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데 주목하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주 : 여성 취업자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여성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세부내역

(단위: 천 명, %)

	규모			증가율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634	451	183			
2009	774	484	291	22.1	7.3	59.0
2010	923	498	425	19.3	2.9	46.0
2011	1,063	533	531	15.2	7.0	24.9

주: 1)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11년 공공행정서비스의 평균연령이 44.4세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업이 34.3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7 참조).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은 비교적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15~39세 비율에서 보건업이 69.6%, 교육서비스업이 62.6%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업은 40대 이상의 연령 비중이 각각 56%, 58%가 넘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16.4%로 고연령 여성 취업자가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한 여성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전 연령에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은 50세 이상에서 두 배가량 증가해 두드러졌고, 2010년 이후 15~29세, 30대의 연령대가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8 참조).

〈표 9〉을 보면 학력구성을 여성 취업자 전체로 봤을 때 고졸 이하 학력이 절반 이상인데 반해, 여성 사회서비스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64.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의 비중은 21% 수준에 그쳐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역시 전문영역의 특성상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구성(2011년)

(단위: 세, %)

	평균연령	연령대 구성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여성취업자	43.9	20.3	20.8	26.8	20.3	11.8
공공행정서비스	44.4	14.3	29.5	24.6	15.2	16.4
교육서비스업	36.4	28.6	34.0	27.9	8.3	1.1
보건업	34.3	42.6	27.0	20.6	8.3	1.5
사회복지업	42.3	20.6	21.3	28.9	20.4	8.9

자료: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8〉 여성 사회복지업의 연령별 취업자 구성

(단위: 천 명, %)

	2008	2009	2010	2011
전 체	183	291 ( 58.2)	425 (46.4)	531 (24.4)
15~29세	39	46 ( 17.9)	77 (67.4)	109 (41.6)
30~39세	44	72 ( 63.6)	96 (33.3)	113 (17.7)
40~49세	60	90 ( 50.0)	125 (38.9)	153 (22.4)
50~59세	27	56 (107.4)	83 (48.2)	108 (30.1)
60세 이상	14	27 ( 92.9)	45 (66.7)	47 ( 4.4)

주: 1)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학력구성(2011년)

(단위: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취업자	100.0	25.9	38.8	13.4	21.9
공공행정서비스	100.0	22.2	26.7	12.8	38.3
교육서비스업	100.0	2.8	19.0	13.3	64.9
보건업	100.0	4.5	32.1	39.6	23.8
사회복지업	100.0	16.6	33.0	26.9	23.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세 이상 고령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사회복지업은 전문대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에서 33%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는 학력구성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졸 이상이 38.3%인 동시에 중졸 이하도 22.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특징을 <표 10>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은 49.0%로 여성 전체의 비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45.6%)와 시간제(27.2%)가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서비스업은 기간제(27.6%), 시간제(21.3%), 특수고용(7.7%) 비중이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

보건업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아 2011년 8월 21.2%가 비정규직이고 78.8%가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한시근로로 기간제(14.9%)와 계속고용가능(2.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의 비중은 다른 사회서비스업과 다르게 낮은 수준(3.3%)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은 보건업과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여성 사회복지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세부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37.2%), 시간제(29.7%) 파견근로(3.5%)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로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그림 4]를 통해 살펴보면, 2004년에 비해 여성 사회서비스업 가운데 비정규직이 증가한 산업은 사회복지업이다. 공공행정서비스업이 2009년 급등한 이유는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공공행정서비스 일자리를 늘린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2010년 이후 감소해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Q)으로 묶여 있는 두 산업의 고용형태의 양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1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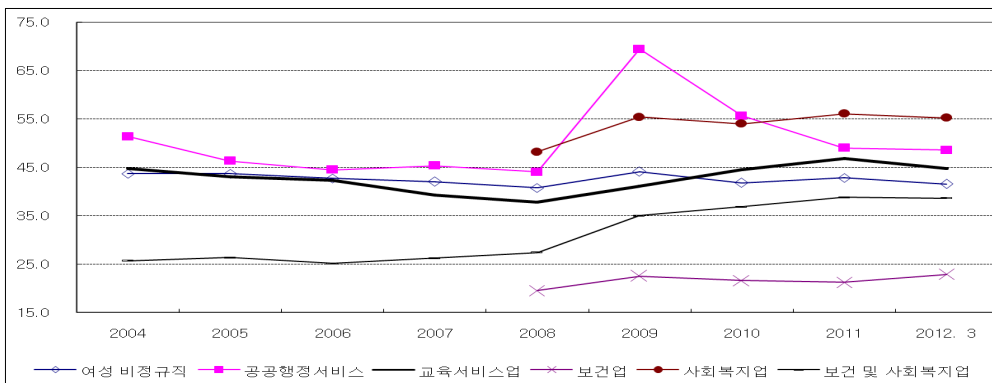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임금근로	여성 임금근로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5.8	57.2	51.0	53.2	78.8	43.9
비정규직	34.2	42.8	49.0	46.8	21.2	56.1
한시근로	19.7	24.1	46.7	31.2	18.5	42.0
기간제	15.2	18.8	45.6	27.6	14.9	37.2
계속고용	1.9	2.0	0.8	2.1	2.9	3.5
기대불가	2.5	3.3	0.3	1.4	0.8	1.5
비전형	13.9	15.7	1.4	8.2	0.6	4.6
파견	1.1	1.4	0.8	0.4	0.2	3.5
용역	3.8	4.0	0.0	0.1	0.2	0.4
특고	3.5	5.6	0.0	7.7	0.0	0.0
가내	0.4	0.9	0.0	0.1	0.0	0.2
호출	5.5	4.5	0.6	0.0	0.2	0.8
시간제	9.7	16.5	27.2	21.3	3.3	29.7

자료 : 통계청(2011.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그림 4〕 산업별 여성 비정규직 추이

(단위 : %)



주 :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근속기간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 11>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경우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이는 2008년과 2011년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도 30%를 하회하는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장기근속자가 가장 많은 교육서비스업을 살펴보면, 2011년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57.9%로 2008년 대비 1.4%p 증가한 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소폭 감소해 2011년 22.8%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도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증가해 2011년의 절반에 가까운 49.8%를 기록했다. 그러나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이 2008년에 비해 약 7%p가 증가해 37.4%를 나타냈고, 1~3년 미만 근속자는 크게 줄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양분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보건업은 1년 미만 신규취업자의 비중은 변화 없이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3.7%p 증가해 2011년 42.6%를 기록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신규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업은 2011년 41.2%로 2008년 대비 2.7%p 증가하였다. 반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2008년 대비 7.4%p 감소하여 26.7%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근속기간(2008년, 2011년)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2008	201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 미만	28.9	28.8	30.5	37.4	23.1	22.8	30.8	30.2	38.5	41.2	
1~2년 미만	12.2	12.5	13.0	6.7	12.4	12.0	17.9	15.9	19.8	21.0	
2~3년 미만	6.9	6.9	9.2	6.1	8.1	7.2	12.4	11.3	7.7	11.2	
3년 이상	52.0	51.8	47.3	49.8	56.5	57.9	38.9	42.6	34.1	26.7	

주: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며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 임금 및 근로조건의 특징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을 여성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세부 산업의 상대 임금 수준을 보면, 공공행정 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나 사회복지업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12 참조). 또 교육서비스와 사회복지업의 상대임금 수준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업의 상대비중은 소폭,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의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9년 상대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 추이를 <표 13>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12년 3월 38.6%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3월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의 저임금 비중은 높은 수준인 반면,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2>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의 상대수준 추이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100.0	129.5	140.6	121.9	89.1
2009	100.0	103.4	144.6	120.1	81.9
2010	100.0	116.1	139.6	118.9	83.6
2011	100.0	118.5	141.9	113.7	83.9
2012. 3	100.0	124.6	142.9	112.6	81.8

주 : 1)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1주당근로시간×368/84)

2) 각 연도 여성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의 상대임금임.

3)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표 1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저임금 비중 추이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
전 체	41.5	41.7	40.0	42.3	39.6	39.1	39.8	34.5	38.6
공공행정서비스	31.2	33.1	27.6	32.4	28.8	45.7	43.3	38.3	35.8
교육서비스업	16.6	18.4	17.6	19.0	18.4	16.9	19.2	15.5	17.9
보건업					20.5	19.6	20.5	15.6	19.8
사회복지업					39.4	39.5	42.6	37.0	42.4

주 : 1)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임.

2)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3) 2004~2011년은 각 연도 8월 기준이고 2012년은 3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8월, 2012년 3월.

교육서비스업은 2004~2012년 사이 큰 변화 없이 15~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업은 2008~2012년 등락을 반복하지만 20%를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회복지업 여성 근로자가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011년 8월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를 보면, 사회서비스업 대부분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은 가입률과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14 참조). 특히 보건업의 경우 취업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수혜율도 여성 임금근로자나 다른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산업에서 기간제의 비중이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업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나타내지만, 근로복지 중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는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의 연도별 차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표 14〉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2011년 8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여성임금근로자	57.4	59.3	56.0	55.2	55.8	35.0	46.7
공공행정서비스	66.3	69.7	47.7	56.1	55.2	51.3	61.3
교육서비스업	66.1	66.9	49.5	62.8	59.5	47.0	58.5
보건업	92.9	93.7	92.4	89.8	84.9	50.9	75.2
사회복지업	74.6	77.1	76.7	66.5	56.5	22.2	43.1

주: 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나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함.

2) 고용보험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1.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IV. 맺음말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여성고용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서비스업도 자영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구조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가운데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인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증가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여성 사회복지업의 증가에 힘입어 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성 사회서비스 고용비중과 여

성 고용률의 국제비교 결과, 복지국가의 발달 정도와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참여가 여성 고용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살펴보니 고학력의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와 보건업은 비교적 낮은 연령이 많고 여성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높으며 사회보험가입 및 기업복지수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는 높은 연령, 저학력, 높은 저임금비중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이 시장화되어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전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지배적인 산업은 저임금과 경력불인정, 고용불안정의 현상이 수반되었다. 여성이 집중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 전반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더 나은 고용조건(임금, 고용보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LI**

### <참고문헌>

Wagner Alexandra(2005), “Working in the Service Sector”, *Services and the employment prospects for woman* Ch5.

김혜원·안상훈·조영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